I ♥ DOKDO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제33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8년 11월 28일
부산시 사하구 괴장로263. B1층(괴정동)
TEL:051-466-8761. FAX:051-206-8761
ds5ean@naver.com
H · P : 010-6504-6510

계간33호 발행 · 편집: 이상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 (온천3동.부원A)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 ㈜동아P&P (051)807-0600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 33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피 같은 돈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창간호부터 전부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日국회의원 "독도는 일본 땅,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라"

http://cafe.daum.net/anadok/4pC6/422
원본을 보실분은 위 주소로 보세요.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이 일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 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 소속 인사들이다. 이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하고 현재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일본 정부 행사로 격상하라고 주장했다. 올해 여름 독도를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영토문제를 담당하는 마쓰모토 요헤이 내각부 부대신이 참석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영토"라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력히 항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치권은 앞서 2012년과 2014년에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독도 문제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동경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후원금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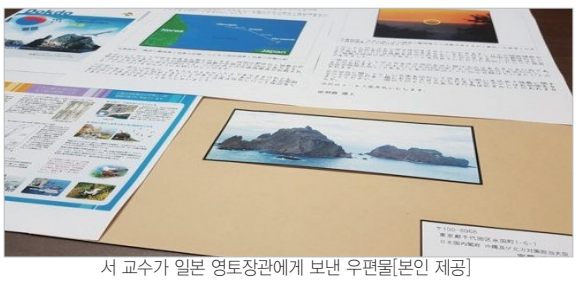
이순옥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20,000원
이상곤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대림	10,000원
김대홍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우신	25.000원
원정만	부산시 남구 용호동대광	10,000원
김성천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10,000원
최기식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95.	10,000원
택시 손님들	조금씩 후원금 합계	100,000원

"독도, 일본 고유 영토" 망언 日 장관에 서경덕 "공부 좀 하라" 일침

[출처: 중앙일보] 입력 2018.10.25 13:07 수정 2018.10.25 13:11 채혜선 기자

미야코시 미쓰히로 장관(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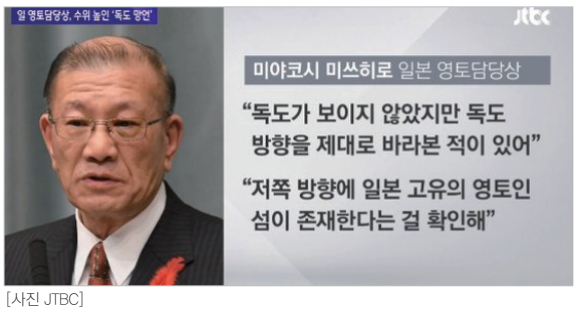
"부디 독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어 자료를 보내니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서 교수가 일본 영토장관에게 보낸 우편물[본인 제공]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독도 관련 망언을 한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신임 일본 영토 담당 장관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와 울릉도에서 찍은 독도 사진 등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JTBC]

미야코시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독도 주변 해역을 방문했던 경험은 언급하며 "이전에 낙도 진흥과 관련해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에 갔었다. 독도는 오키 제도의 시마마치(島町) 영역인데, 거리적으로는 서쪽의 시마마치 곳에서 가장 가깝다"고 주장했다.



[사진 JTBC]

그러면서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론 (독도가) 보이진 않았지만, 독도 방향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다"며 "저쪽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의 섬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수는 미야코시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다시는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서경덕 교수 제공]

서 교수는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가 87.4㎞이고, 일본의 오키섬과 독도 사이의 거리는 157.5㎞이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다시는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독도는 울릉도서 87.4km, 일본 오키섬서 157.5km 위치에 있다 [서경덕 교수 제공]

이어 "오키섬에서는 절대 독도를 볼 수 없지만 한국의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을 때면 독도가 선명히 보인다"며 "이번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해준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편지에서 "한심스럽다" "창피하지 않으냐"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미야코시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서 교수는 미야코시 장관의 이번 발언을 역이용해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지속해서 알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4차 개각과 동시에 영토 담당 장관에 임명된 미야코시 장관은 일억총활약 담당 장관과 행정개혁 담당 장관을 겸임하고 있다. 미야코시 장관은 도야마현 의회 의원, 농림수산부장관, 총리 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극우 정치단체인 일본회의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일 의원연맹 소속으로도 활동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연락처	이 메 일			사진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 소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 도 사 수 연 합 회 귀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263 (괴정동) 우편번호 : 49384
TEL : 051-466-8761, FAX : 051-206-8761,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범일동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에 회원 가입하시려면

1.성명. 2.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3.성별.
4.전화번호(휴대폰번호.) 5. 집 주소. 6. 메일주소
7.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셔도 회원가입 됩니다.

자원봉사나 회비를 내시거나 행사에 참여 하셔도 됩니다.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https://cafe.naver.com/docdoinkorea
http://dokdomk.com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네이버 독도사수대 구독신청 : TEL.051-466-8761 FAX.051-206-8761 HP.010-6504-6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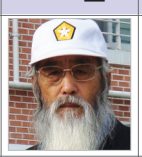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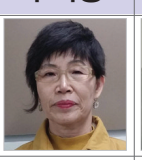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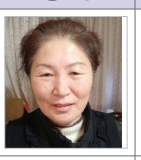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대비해서 행사와 독도홍보와 유인도화 서명운동 합니다

"독도칙령의 날"을 준수하자! (독도의 날은 안된다)

구한말에, 일본인들이 불개항장인 '울릉도 및 독도' 지역에 불법적으로 몰려들자, 조정은 1900년에 우용정(내무공무원)을 단장으로 한 국제현지조사단 (일본영사 아카쓰카, 경부 와다나베 및 영국인 E. Laporte를 포함)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1900.5.31. 현지에 도착한 조사단은 1주일간 현지조사 끝에 144명의 일본인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근대국제법의 요건을 갖추어, '독도를 울도(울릉도)의 관할 하에 둔 다' 는 명문규정을 둔 대한제국칙령 제41호 (1900.10.25.)를 반포하고, 동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공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사관에 공시하였으나 어떤 공사관으로부터의 이의도 없었다. 이로써, '독도' 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이 국제법상 재 완성된 것이다 (1699.1월 이후). 이것이 우리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10.25.)를 "독도칙령의 날"로 호칭하는 이유이다. **항간의 말대로, "독도의 날"로 부른다면, 상기 국제법적 내역이 가려지고 만다.** '독도' 에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2006년 제정한 것은 '독도' 에 대한 우리와 같은 상기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허구의 "00 날"에 불과하다. 결코 이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나홍주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1900년 10월25일은 고종황제께서 울릉군수에게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하라는 명을 반포하신 겁니다, 즉 독도칙령을 반포하시니 "독도칙령의 날" 이라 하는것이 더 맞는 말 입니다.
독도날은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 한날. 안용복장국이 일본에 서계를 받은 날. 홍순칠 대장이 독도수비하려 독도입도 한 날. 등을 독도날로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독도날을 "독도칙령의 날" 로 바로 잡읍시다. ---------- <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

독도사수연합회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면 독도는 영원한 우리 땅입니다.)

상임고문	학술고문	협력고문	고 문	고 문	고 문	고 문	자 문	자 문	홍보대사	회 장	부회장	사무처장
												
최정헌원장	김영구교수	황성일회장	장현섭유공	곽현옥약사	송정숙여사	박노분여사	문병준교수	임기병교수	가수 서희	독도이상훈	김영희	윤예준 의장
대전지회장	충북지회장	울산지회장	경기지회장	서울지회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송지영	한명석소장	정종수	한채훈	장태현사장	김석순회장	박대희	백미경	전기훈	권정학	김필이여사	김옥희사장	박관영

독도 주민 故 김성도 이장 "하늘에서도 독도를 수호하겠다"

박종면 기자, 사진제공 박수현 승인 2018.11.05 1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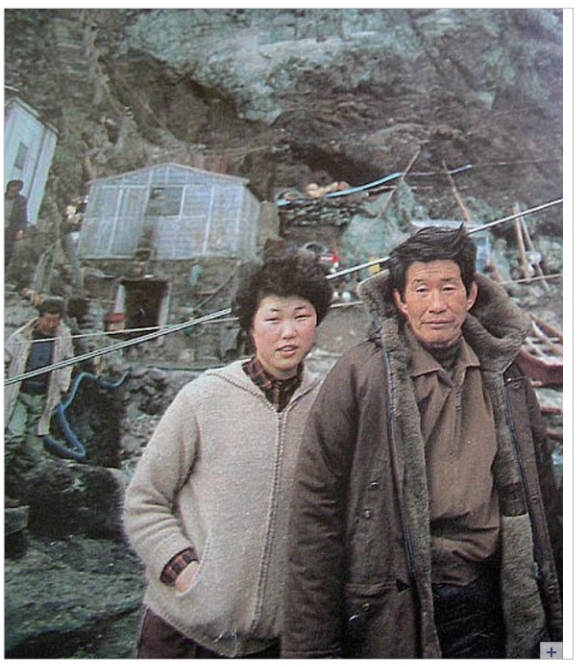
[현대해양] 대한민국 동쪽 땅끝인 독도에 주소지를 두고 50년 넘게 독도를 지켜 온 독도 지킴이 김성도 씨가 지난달 21일 7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씨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이제 독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김 씨의 부인 김신열 씨만 남게 됐다. 경북도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서울 아산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지난 9월 이후 간암으로 이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다. 김 씨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증거'이며 '증인'이었다. 지난 1965년 독도 최초의 민간인 주민 고(故) 최종덕 씨가 1987년 9월 숨지자 울릉도에 살았던 김 씨는 1991년 11월 부인인 김신열 씨와 함께 주소지를 독도로 옮겼다. 2007년도 4월 6일에는 이장에 취임했다. 태풍에 집이 무너져 한때 울릉도에 나가 살기도 했지만, 국민성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지은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전화도 인터넷도 없고, 빗물을 받아 쓰면서도 김 씨는 독도만을 고집했다. 김성도 씨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응해 민간성금으로 건조된 '독도호'를 기증받아 직접 몰고 바다로 나가는 등 독도 수호 활동을 적극 벌였다. 독도를 방문한 대통령도 김 씨부터 찾았고, 2006년 5월 독도에서 부재자투표가 있던 날에도, 2007년 3월 독도의 3G 이동통신 개통일에도 김씨가 함께 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치뤄진 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독도에서 투표하는 등 선거 때마다 참여했다. 독도의 샘물인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도 직접 제작했다. 김씨는 소형 어선을 이용, 독도 주변에서 수산물을 잡아 생활했다. 2013년 5월부터는 독도사랑카페를 만들고 관광 기념품 소매업을 해왔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2014년 1월 독도방문객들을 상대로한 독도 티셔츠도 판매했다.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이기도 한 김씨 영현은 현충원에 안장됐다.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현대해양(http://www.hdhy.co.kr)

독도 최초주민 최종덕씨 딸 독도거주 주민 신청

최경숙씨 5일 해양수산부, 경북도, 울릉군에 독도 거주신청서 제출

김두한기자 | kimdh@kbmaeil.com 등록일 2018.11.05 게재일 2018.11.05.

▲ 독도에서 살던 최경숙씨가 아버지가 따온 미역을 말리고 있다. /최경숙씨 제공



▲ 부친 최종덕씨와 생전에 독도에서 살던 때의 최경숙씨. /최경숙씨 제공

【울릉】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는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씨의 딸 최경숙 씨가 독도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독도거주 주민 신청서를 5일 해양수산부, 경북도, 울릉군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종덕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최종덕 씨와 같이 독도에서 생활했던 김성도씨가 별세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이를 계기로 최 씨의 딸인 경숙 씨가 독도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 기념사업회는 경숙 씨의 독도주민 입도 신청서 및 입도 신청에 대한 개요, 독도 최초 주민등록증을 옮긴 증빙자료 등을 이날 함께 제출했다. 경숙 씨는 독도주민 입도 신청 배경에 대해 아버지를 따라 독도에 처음 입도한 시기는 최 씨가 15세인 지난 1979년 독도 주민으로 거주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81년 10월 14일 아버지(최종덕), 어머니(주갑순)과 함께 독도 주민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그녀는 이번에 김성도 이장이 별세하자 그의 사위가 대를 이어 독도에서 생활하려 한다는 큰 뜻의 감동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저 또한 최초의 독도주민인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며 독도사랑의 대를 계속이어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경숙씨는 김성도 이장 따님과 함께 최종덕, 김성도 두 분의 1세대 독도주민의 독도사랑에 이어 2세대들의 독도주민으로서의 의미 있는 동행을 함께 하기 위해 신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독도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있고 함께 입도하는 남편은 여러 기계를 다룰 줄 알아 바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25년 경력) 자격증과 중장비 비롯해 보트운전경력 등 바다생활에 필요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독도생활에는 자신 있고 무엇보다 대를 이어 독도를 지키겠다는 사명감도 충만하다. 현재 독도주민숙소에 자신들의 부부가 거주할 공간이 있고 독도를 지키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관련단체 관계자는 "최씨는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독도에서 보내 독도 생활능력이 뛰어나고 대를 이어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거주를 허락하면 독도 2세대 거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도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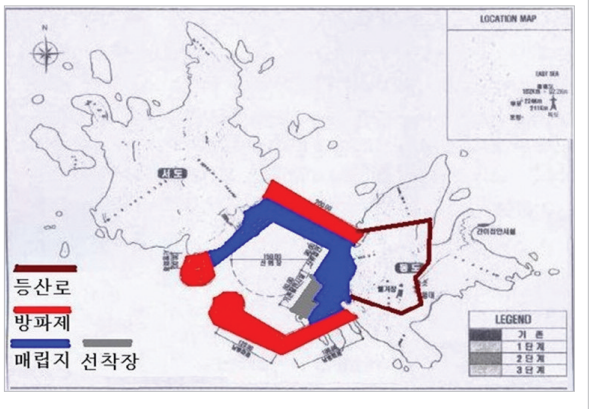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독도주인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는 것을 알면서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이다. 지금 까지 몰랐고 지금 알았다면 이제부터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하십시오. 할 줄 모른다면 회원이 되시고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시간이 없다면 회비만 내든지 후원금을 내시면 독도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활동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 후원 ,활동 전부다 하시는 분은 더 큰 독도 지킴이가 됩니다.

010-6504-6510. ds5ean@naver.com

이렇게 독도 개발 하자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큰 섬이 두 개다. 두섬의 거리는 약 170m이다. 붉은 것을 방파제로 하고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를 만들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서 살게 하자는 개발안이다. 지금은 독도에 체류시간이 30분이다. 4~5시간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면 독도주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다. 독도선착장을 만드신 강향희 회장님의 방파제 개발안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1. 방파제를 만들면 파도가 있어도 접안 된다.
2. 등산로를 만들어 동도정상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게 하고 내려오는 길은 북쪽 방파제 쪽에 별도로 만든다.
3. 독도를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4. 서도에 10가구동도에 10가구정도 살게 한다.
5. 학교가 없으니 50~60대가 살면 된다.
6. 서도 어민숙소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생태계 보존한다.
7. 일본은 국제재판으로 독도를 뺏으려 하니 개발하여 사람이 살면 국제 법으로 유리하다.

나라가 힘이 있고 정부가 잘 하면 국민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노력하자.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 · 외에 홍보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받은분 이름 전화)
네이버 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 010-6504-6510
보낼 곳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1번길12. A동203호(온천동부원A) 독도이상분 우편 47825
서명받은분 명단은 박물관에 영구보존되고 100명이상 서명 받은 분은 증서를 드립니다.

독도는 일본 섬? 미국 CIA 오류 지도 수십년 방치

"국의회도서관 등에서 열람 가능... 외교부 "미국에 시정조치 요구"

18.11.06.11:21l최종업데이트18.11.06 11:21l 김시연(staright)

▲1986년 미국 CIA에서 제작한 '인도양 지역' 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기했다. ⓒ 미국의회도서관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구글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지도는 물론 외국 유명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오프라인 지도에서 독도를 어떻게 표기했느냐에 따라 한일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강력한 시정요구가 뒤따르기도 한다. 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도는 공신력이 실리기 때문에 민감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월드팩트북(worldfactbook)'이 대표적이다. CIA는 지난 2015년 1월 한일 양국 지도에 각각 실렸던 '독도(Liancourt Rocks)'가 한국 지도에만 빠져 논란이 되자 단순 실수였다며 하루 만에 되돌리는 소동을 벌였다. 미국 정부 역시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 지난 수십 년동안 정책"이라며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중립적 입장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에서 과거 미국 CIA에서 발행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독도 영유권 표기 관련 상당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미국의회도서관 등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잘못 표시한 지도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CIA 월드팩트북,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

▲미국 CIA(중앙정보국)에서 발행하는 "월드팩트북"에 독도("Liancourt Rocks")는 한국과 일본 지도 양쪽에 표시하고, "한국과 일본은 한국이 1954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 암초(독도/다케시마)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적고 있다. ⓒ 미국중앙정보국

2018년 11월 현재 CIA '월드팩트북(worldfactboo k)'에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란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 지도 양쪽에 모두 등장한다. 아울러 CIA는 한국과 일본 페이지에 각각 "한국과 일본은 한국이 1954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 암초(독도/다케시마)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South Korea and Japan claim Liancourt Rocks (Tok-do/Take-shima). occupied by South Korea since 1954)"고 적으면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했다. CIA는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리앙쿠르 암초와 함께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함으로써 독도를 한일 양국의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쪽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CIA에서 발행하는 지도에 독도를 어떻게 표시했을까? CIA는 오프라인으로 발행한 세계 각국의 지도 하드카피를 미국 지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다. 재미 민간사학자인 유광언씨는 지난달 〈오마이뉴스〉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1989년 CIA 지도를 미국 도서관에서 찾았다"고 제보했다.

▲1989년 미국 CIA가 발행한 한반도 지도에 리앙쿠르 암초를 남한 영역 색인에 넣었다.'(자료 출처: 미국 위스콘신대 밀워키분교 내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 ⓒ 미국위스콘신대도서관

CIA에서 지난 1989년 9월 발행한 한반도(Korean Peninsula) 1:120만 컬러 지도로, 독도는 울릉도 오른편에 'Liancourt Rocks'로 단독 표기돼 있다. 'Liancourt Rocks'는 독도를 뜻하는 중립적인 지명으로, 현재 CIA 월드팩트북 표기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유광언씨는 지도 뒷면 색인표(Index)에 독도가 남한의 지명으로 분류돼 있는 점을 들어 '한국령'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도 색인표에는 한반도 주요 지명이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돼 알파벳순으로 배열돼 있으며, Liancourt Rocks(독도)는 남한편에 '북위 37도15, 동경 131도52' 지점에 위치한 Island(섬)로 표시돼 있다. 유씨는 "이렇게 색인표에까지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외국지도는 아직껏 나온 적이 없다"면서 "CIA가 1989년 한순간만이라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씨가 지난 2014년 미국 백악관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하자,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 지난 수십 년동안 미국 정부의 정책"(The U.S. government's policy for decades has been not to take a position regarding sovereignty over the Liancourt Rocks. This is a long-standing dispute, that Korea and Japan have handled with restraint in the past.)이라고 답변했다.

독도는 일본 영토? 미국 의회도서관에 CIA 오류 지도 다수 방치 유씨 주장처럼 1989년 CIA 한반도 지도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독도 점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서 CIA가 발행한 한국, 일본, 동아시아 지도들을 비교한 결과, 미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 표기에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잘못 표기한 CIA 지도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1989년 한반도 지도와 달리 1987년과 1993년, 2011년에 각각 CIA에서 제작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에 지명 표기가 없거나, 아예 독도 자체가 빠진 지도도 있었다. 1996년 CIA에서 발행한 일본 행정구역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속한 것처럼 표시했다.

▲미국 CIA에서 1996년 제작한 일본 행정구역 지도에는 독도(Liancourt Rocks)를 일본 시마네현에 속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 ⓒ 미국의회도서관

또 1986년 CIA에서 제작한 '인도양 지역' 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표기했다.특히 2002년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주요 섬들의 영유권을 표시한 CIA 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령섬들과 동일한 색으로 구분했다. 같은 지도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 지역으로 명시했지만 독도는 분쟁 표시조차 없었다.

▲2002년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주요 섬들의 영유권을 표시한 CIA 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령 섬들과 동일한 색으로 구분했다. 같은 지도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분쟁지역으로 명시했지만 독도에는 분쟁 표시조차 없었다. ⓒ 미국의회도서관

외교부 "독도 표기 오류 지도 인지하고 미국에 시정 조치 요구"

이처럼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잘못 표시한 CIA 발행 지도는 미국 의회도서관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도서관에 비치돼 있고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외교부는 2일 〈오마이뉴스〉에 "(독도 표기에) 오류가 발견된 지도는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도를 포함해) 미국 측에 독도나 동해 표기 관련 오류가 발견된 지도에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인터넷상 (온라인) 지도는 대부분 리앙쿠르로 표기하고 있고 하드카피 지도가 아직 잔존한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외 독도 관련 지도를 수집해온 양재룡 호야지리박물관장은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이의 제기가 강해지면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세계 지도도 점점 일본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독도'만 표기하던 세계 지도도 '다케시마'를 병기하거나 '남한이 점유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의제기를 했다'는 식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관장이 '타임', '브리태니커',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에서 발간하는 세계 지도를 분석한 결과, 1950~60년대까지는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표기했지만 197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는 독도를 'Dokdo'로 표기하고 남한 영토로 명기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독도(다케시마)'로 병기하고 "남한이 점유하고 있으나 일본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명시했다. 온라인 지도도 마찬가지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지난 2004년 CIA를 비롯해 해외 100대 유명 사이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행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재룡 관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국경선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돼있는 지도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보다 10년 전인 1895년 일본에서 만든 '실측 일청한군용정도'에는 국경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도소식지 33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